



## 특집—“문학비평의 방향과 길 찾기”

김태환·최진석·이동신·양순모·이희우·이소

『쓰레기-문학의 이름으로』 제17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140\*240 / 488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 “문학비평의 방향과 길 찾기” 특집으로 엮어

이번 호 <특집>은 “문학비평의 방향과 길 찾기”로, ‘포스트’ 시대에 관한 재검토와 새로운 ‘뉴’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 장에 주어진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지 7호의 특집인 “이론과 비평, 그 관계의 재구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이번 특집은, ‘포스트’와 ‘뉴’의 긴박한 역학 관계 속에서, 그간 새롭게 제출되어온 이론적 탐색과 비평적 실천이 과연 문학과 문학비평을 혁신할 만한 의미 있는 역량을 지닌 것인지, 행여 ‘비평 위기론의 위기’ 안에서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보자는 의도를 품고 있다. 이런 시도가 최근 몇 년간 한국문학 비평계를 휩싸고 있는 묘한 침체 분위기를 견어낼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만큼 ‘비평’의 활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1. 새로움의 체제로서의 근대와 종말의 수사학 | 김태환
2. 포스트휴먼, 또는 ‘이후’와 ‘바깥’의 존재들\_비인간을 둘러싼 시적 물음 | 최진석
3. 신사물론의 새롭지 않은 새로움 | 이동신
4. 신역사주의를 애도하기 | 양순모
5. 비평이 오래 가르쳤지만 배울 수 없었던 것들 | 이희우
6. 종언 앞에서 부활하기, 멸종 앞에서 사물 되기\_21세기 문학비평의 지형도 | 이소

### 특집과 함께—현장의 목소리: 지금-여기에서의 나의 문학

1. 아이들과 그림자 수집가들\_최근 읽고 쓴 몇 편의 시를 돌아보며 | 김중일
2.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 김태용
3. 존재론으로 주체를 재사유하기 | 최다영
4. 전에 알던 내가 아냐(<Brand New Sound>)는 커녕... | 한정현
5. 함께 춤추고, 함께 연결되기를 | 황사랑

## 제9회 문학실험실 포럼—최인훈 5주기 기념: 최인훈의 실험 정신

올해로 9회를 맞는 <문학실험실 포럼>은 한국 현대소설의 중요한 기점을 이루는 최인훈 작가의 5주기를 기념하여, 그가 평생 우리에게 남기고 간 문학적 성과를 반추하며 특히 그가 개진한 실험 정신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인훈의 초기 작품인 『광장』 으로부터 후기 작품인 『화두』 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문학적 여정을 섬세하게 조망하는 연구 논문을 한 자리에 모았다.

1. 『광장』과 그 이후, 최인훈의 문학적 사유와 실험의 흔적들 | 정영훈
2. SF로 읽는 최인훈\_신유물론적 사변 소설 『서유기』 | 연남경
3. 지구적인 것과 행성적인 것\_최인훈의 『태풍』과 두 개의 역사 쓰기 | 장문석
4. 바늘 끝 천사\_최인훈, 『화두』의 위상학 | 양윤의

## 제9회 김현문학패

제9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로 소설가 김이설 씨와 시인 황유원 씨가 선정되었다. 김이설 씨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상상의 언어로 형태화해나감으로써 읽기 두려운, 그러나 읽어야만 하는 소설들을 끈질기게 제시해온 그 치열함이 높게 평가받았다. 그리고 황유원 씨는 “모두가 모든 걸 한다”는 직관에 기초한 사념과 섬세한 감각을 교직하여 이루어낸 ‘난경의 시’의 독특한 경지가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김형중 씨와 송승환 씨의 작가론은 그 성취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 시와 소설+텍스트 실험 공간

<시와 소설>에는 소설가 김숨·김종욱·나푸름·오성은 씨와 시인 김언·서호준·임유영 씨의 신작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텍스트 실험 공간>은 시인이면서 최근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김유림 씨가 개성 넘치는 기행 소설을 선보인다. 이곳은 늘, 이미 문학적 평가를 받아온 작가들의 새로운 모색, 숨어 있던 작가들의 진면목, 신인들의 패기 등, 다채로운 문학 읽기의 장이 되고 있다

## 지금 이 언어

<지금 이 언어> 코너에는 두 편의 비평이 마련되었다. 하나는 소유정 씨의 글로 천희란의 『우리에게 다시 사랑이』와 손보미의 『사랑의 꿈』의 그 ‘사랑’의 실체를 정면으로 분석한다. 이어 홍성희 씨는 민병훈의 『달력 뒤에 쓴 유서』와 신종원의 『습지 장례법』에 드러난 ‘쓰는 나’와 ‘쓰인 나’에 주목하며 소설을 이루는 겹겹의 레이어를 다각적인 시선으로 발견해낸다.

## 그때 그 실험

<그때 그 실험> 코너에서는, 1980년에 출간된 이성복의 첫 시집 『똥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를 새롭게 조명하는 글을 선보인다. 김나영 씨는 시집 곳곳에 활용된 지시대명사가 창출한 시적 효과와 그 목적을 분석하여 이성복의 말하기 방식을 재발견한다

---

### 차례

#### 특집: 문학비평의 방향과 길 찾기

1. 새로움의 체제로서의 근대와 종말의 수사학 | 김태환
2. 포스트휴먼, 또는 '이후'와 '바깥'의 존재들\_비인간을 둘러싼 시적 물음 | 최진석
3. 신사물론의 새롭지 않은 새로움 | 이동신
4. 신역사주의를 애도하기 | 양순모
5. 비판이 오래 가르쳤지만 배울 수 없었던 것들 | 이희우
6. 종언 앞에서 부활하기, 멸종 앞에서 사물 되기\_21세기 문학비평의 지형도 | 이소

#### 특집과 함께—현장의 목소리: 지금-여기에서의 나의 문학

1. 아이들과 그림자 수집가들\_최근 읽고 쓴 몇 편의 시를 돌아보며 | 김종일
2.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 김태용
3. 존재론으로 주체를 재사유하기 | 최다영
4. 전에 알던 내가 아냐(<Brand New Sound>)는 커녕... | 한정현
5. 함께 춤추고, 함께 연결되기를 | 황사랑

#### 시와 소설

- 20호 동굴 | 김숨
- 고향 생각 외 2편 | 김언
- 불타는 아이 | 김종옥
- 베짖이 주식회사 | 나푸름
- 뼈 한 피에 두 대째 외 2편 | 서호준
- 비밀에 말을 걸어요 | 오성은
- 담자균문 외 2편 | 임유영

#### 텍스트 실험 공간

- 그 건물\_기행 소설 이야기 | 김유림

#### 제8회 문학실험실 포럼—최인훈 5주기 기념: 최인훈의 실험 정신

1. 『광장』과 그 이후, 최인훈의 문학적 사유와 실험의 흔적들 | 정영훈
2. SF로 읽는 최인훈\_신유물론적 사변 소설 『서유기』 | 연남경
3. 지구적인 것과 행성적인 것\_최인훈의 『태풍』과 두 개의 역사 쓰기 | 장문석
4. 바늘 끝 천사\_최인훈, 『화두』의 위상학 | 양윤의

#### 제9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 김현문학패 소개
- 선정의 말 4
- 수상 소감
  - \_이름조차 없던 인물들 때문 | 김이설
  - \_시와 함께 우주적 춤을 | 황유원
- 수상 작가론
  - \_‘최악’의 소설사\_김이설론 | 김형중
  - \_양장브망—꿈의 선화와 착지\_황유원론 | 송승환

#### 지금 이 언어

- 부사를 포함한 공백을 안으며—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사랑 말하기: 천희란의 『우리에게 다시 사랑이』와 손보미의 『사랑의 꿈』 | 소유정
- 이름 없는 마음: 민병훈의 『달력 뒤에 쓴 유서』와 신종원의 『습지 장례법』 | 홍성희

#### 그때 그 실험

- 여전히 그것에 관하여: 이성복의 『똥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 김나영